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함께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화해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또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이 우리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가는” 사람으로써,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특별한 관심사는 전세계, 그리고 미국에서 조차 취약하기 이를데 없는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간 도움이 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이러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권력 구조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요합니다. 이것이 소외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당한 제도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그들이 제기하는 의견에 우리가 몰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할 때 그들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새로운 이사회 첫 회기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지난 4 차년 전략 계획 정보들을 점검했으며, 그 중 연합감리교인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대한 2005-2006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실려있는 내용 중, 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서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사랑하고, 세계의 어린이들을 돌보라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공부하려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분석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 또는 다른 정부들이 불평등을 끝내도록 혹은 정의를 위해 개입하도록 촉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기업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교회에서도 정의로운 정책을 위해 압력을 가하려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다양한 지도력 발휘를 지지하는 동시에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려 합니다.

“행함”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족, 교회 또는 공동체인 것처럼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는 소망은 우리가 거리, 국경, 언어, 인종 그리고 문화를 뛰어 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조직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려면, 우리는 더욱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다언어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미래를 함께 창조할 수 있는 경험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사 그리고 실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